흙살림
HEUKSALIM

제209호 · 농림부 인가 161호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 Heuksalim Soil Research Institute · 흙은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 2014년 12월[월간]

'흙살림 순환농법' 아파트서 꽃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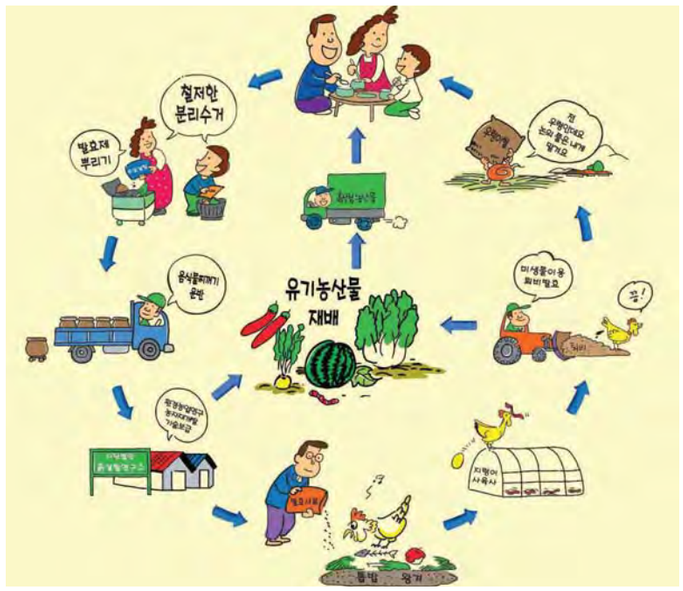
음식물찌꺼기로 퇴비 만들어 도시농업 활용

흙살림의 순환농법이 점점 더 빛을 발하고 있다.

흙살림은 20여 년 전부터 자연적인 순환방법 속에서 음식물찌꺼기 문제를 풀고자 연구해왔고 그 결과물이 흙살림 순환농법이다. 음식물찌꺼기는 2012년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확대 실시되었고, 2013년도엔 해양배출도 금지됐다. 하루동안 쏟아지는 양만 해도 3만톤을 넘어선다. 이렇게 많은 음식물찌꺼기를 자원으로 순환해 활용할 수만 있다면 주거단지가 쾌적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환경에 대한 의식도 고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음식물찌꺼기의 자원화는 퇴비나 에너지로 가능한데, 퇴비의 경우엔 도시 공동텃밭 등을 구성해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2015년 부터는 흙살림이 실제 이렇게 음식물찌꺼기로 만든 퇴비를 이용해 수서, 군포, 수원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텃밭을 통한 자족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흙살림연구소가 확립한 순환농법은 먼저 도시지역에서 분리수거된 음식물찌꺼기를 가축사육장으로 운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운반된 음식물찌꺼기는 가축의 사료로 직접 활용하고, 일부는 축사바닥의 왕겨 등과 혼합한다. 축사바닥의 퇴비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수거하여 지렁이 사육장으로 옮긴다. 지렁이를 이용하여 완숙퇴비를 만든 후 지렁이는 다시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어진다. 최종적으로 남은 퇴비는 유기농 논과 밭에 사용되어져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논밭으로 환원된 퇴비에 의해 재배된 농산물과 가축사육에 의해 생산된 고기는 계란 등과 함께 음식물찌꺼기를 배출한 가정으로 공급한다.



전망대

2014년을 보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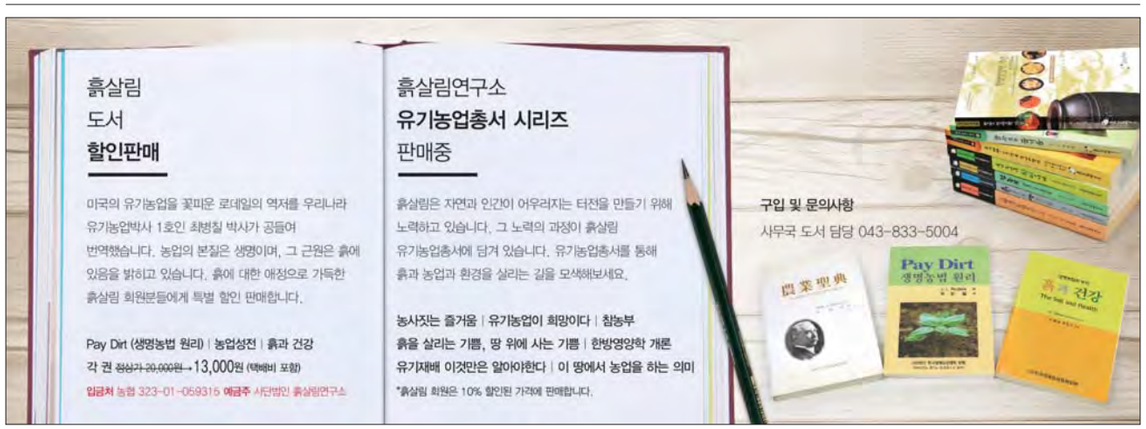
2014년은 흙살림이 '한반도 전체의 유기농업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힘차게 걸어 온 한 해 였습니다. 유기농업을 향한 길이 언제 한 번 평탄한 적이 없었듯이 올해도 어김없이 가시밭길 투성이였네요.

흙살림이 유기농업이 확대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은 특히 벼농사가 우렁이 제초 기술 등으로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초 우렁이 제초 기술을 창안하셨던 고 최재명 선생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수 십 년 간 유기농법으로 지켜온 농토가 산업단지로 바뀌는 것을 반대하시던 중에 황망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생명을 키우는 농토보다는 돈을 불리는 공장을 선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올 여름에는 공중파 방송에서 '친환경 유기농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인증제도의 허점과 농약의 유혹에 빠져드는 농촌현실을 꼬집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이로 인해 친환경 농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유기농업을 지켜왔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방송 후 잔류농약 검사의 항목을 늘리고, 인증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저런 여파 탓에 친환경을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했습니다.

유기농업만이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쌀이 전면 개방되고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농민들의 삶이 위협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농부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허망한 이야기가 가볍게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흙살림은 흙살림 회원들의 믿음과 열정 덕분으로 험난했던 2014년도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흙살림은 더욱 더 유기농업을 향해 흔들림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흙살림 회원님들의 올 한 해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태근 흙살림 대표



영년생 종 통합으로 비옥도 상승

IFOAM 실행지침 중 생물 다양성 II

지난 호에서 IFOAM의 '농업과 가치사슬을 위한 최선의 실행 지침' 의 'B. 생태적 차원 : 공통의 자원들은 지속가능하게 사용된다.'의 3번째 항목의 가치와 가이드라인에 이어 실행사례를 싣는다. 실행사례는 보존지역, 농장생태 강화, 유전적 다양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면상 유전적 다양성은 다음 회로 미룬다.

3. 생물 다양성

실행 사례

보존지역

● 가치사슬에 있는 모든 활동가들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관심이 있다. 1차 생산자가 아닌 활동가들은 1차 생산자들의 생물 다양성 관심에 대해 그들 자신의 운영체의 영향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 지속가능한 개발은 토착식물 지역 및 기타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특히 토착 숲, 가파른 경사지, 강가 식물, 습지대, 늪, 범람원 지역을 잠식하지 않는다.

●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야생종이나 생산물의 수집은 국제조약의 의무(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등), 국가의 보존 법규 및 이 문서에서 기술된 최선의 실행과 가이드라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되며, 수집되고 있는 종의 존재나 그에 의존하는 다른 종들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작물 및 가축 생산 및 기타 인간의 활동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최소한 일부는 생물다양성 서식처로 놔둔다. 그렇게 방치한 지역은 양생 상태로 두거나 다양한 식생 밀도를 늘리게 할 수 있다(특히 퇴화된 토지의 경우). 주: 증진이라는 것이 방치된 지역을 외래종이 지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운영체는 면적의 최소 비율을 방치된 생물다양성 지대로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그들은 방치지역이 너무 자주 이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의된 최소한의 주기를 포함해야 한다. 너무 잦은 이동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 농부들은 샘물 주위, 천연의 수로, 가파른 경사지와 언덕, 기타 생태계의 민감한 부분에 자연 식생 지역을 유지하거나 재 설치한다. 천연 습지대를 배수해서는 안 된다.

● 농부들은 현존하는 종들이 그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들의 자연적인 서식지에 접근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한다. 통로는 종들이 농장 안과 농장 사이에서 그들의 표준적인 이동 패턴을 따를 수 있도록 교란되지 않는다(혹은 식생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한 곳에서는 재구축한다). 주: 이것은 그들이 농장의 생산성에 과도한 장해를 초래하는데도 해충이 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큰 부지에서 통로와 기타 비농업지대는 농장 주위가 아니라 농장 내부에 통합된다.

● 생물다양성지대가 없는 농장에서 -즉 그 지역 모두가 작물, 가축 혹은 기타 인간 활동을 위해 변형되거나 사용되었다 - 통로와 기타 방치지대는 그 지대를 토착의 식물과 동물 밀도로 되돌리는 것 및 토착종들을 선행적으로 재도입하는 것에 의해 설치된다. 농부들은 토착 종들이 사라지지 않거나 외래종들이 지역 생태계에 파괴적으로 퍼지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할 만큼 세심한 배려로 비토착종 및 품종을 도입한다.

농장 생태 강화

전체적인 생산성을 증대할 뿐 아니라 보존지역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부들은 그들 자신의 생산 시스템의 생태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다음 이상을 포함한다:

● 영년생 종들의 통합, 이것은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작물과 작물 잔재를 통한 비옥도를 제공한다.

●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작부의 통합적이고 다양한 혼합을 위해 단일작물 지대의 회피, 이에 의해 양분 사용과 순환, 병해충 저항성의 보다 큰 균형(경계 효과)을 장려하기 위해 재배하지 않는 지역(야생 혹은 생물다양성)과 재배지역의 접촉면을 극대화하는 (포장 크기와 모양을 포함하는) 사려 깊은 작부 패턴들.

● 삼림농업 혹은 수종의 식재 및 유지, 농장 전체 혹은 일부에서 다층 생산, 여기에 존재하는 기후조건과 작물 생육 요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 다양성, 생물학적 활동 및 양분의 순환을 늘릴 수 있도록 생산 시스템에 동물의 적절한 통합 (주: 이것은 역의 적용 즉, 가축/방목 체계가 작물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토지에서 병행하여 작업하지만, 다른 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작부체계와 방목 시스템은 만족스러운 배열일 수 있다.)

● 유기농업의 원칙과 유기인증 기준이 존중된다는 가정하에 다양성, 비옥도 및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종을 사용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혁신과 주의 깊은 실험.

글 최관호 흙살림연구위원장

기후로 나눈 흙

강수와 온도에 따라 토양 생성 차이

한 여름 무성하게 자라던 일년생 초본식물은 기온이 떨어지는 늦가을에 들어서면서 세력이 급격하게 쇠락하여 생을 마감하게 되고 수목은 갖가지 색의 단풍 옷을 입고 나이테 하나를 추가하는 잔치를 끝으로 한해를 마감한다. 겨울기간 50㎝내외의 흙속(根圈)은 얼게(凍土)되므로 생물도 겉흙의 터전을 버리고 보다 지온이 높은 심토로 생활근거지를 옮기게 된다.

기후는 흙이 생성되는 필수인자이고 흙 속에 사는 생물도 온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되어 양극지방의 한대(寒帶)와 적도의 열대 및 그 중간 온대의 생태계가 독특하게 번성한다. 토양생성에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기후인자는 강수와 온도이다.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변이가 매우 커서 한 방울의 빗물도 떨어지지 않는 사막에서부터 10,000㎜이상이 쏟아지는 열대우림이 있다. 이를 토대로 연평균 강수량이 250㎜이하를 건조(arid), 250~500㎜의 반건조(semi-arid), 500~750㎜의 반습성(semi-humid), 750~1,500㎜의 건습(wet&dry), 1,500-2,000㎜의 아습윤(sub-humid)과 2,000㎜이상을 습윤(humid)기후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건조기후에서는 강수일수가 30일이하이고 강우보다 증발량이 많아 식물이 자라기가 어려워 고작 선인장이 식생의 전부이다. 사막기후를 비롯한 건조지역에서는 물리적인 풍화작용이 심하고 풍화산물은 쉽게 용탈될 수 없어 표층에 집적하여 철, 석회의 감식층(鑑識層)을 형성한다. 이렇게 하여 위도와 상관없이 지구도처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모래(沙漠土)나 염이 표층에 쌓인 건조한 흙(aridisols)이 발달한다. 사계가 분명한 온대지방(韓國)에서는 건습기간이 뚜렷하고 1,200㎜내외의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하여 암석광물의 분해와 용탈로 ABC층이 있는 흙이 생성된다. 풍화와 집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젊은 흙(entisols, enceptisols)이 넓은 평야를 점하고 경사지에는 보다 나이가든(壯年) 흙(alfisols, ultisols)이 분포한다. 동결층이 발달한 한대지방에는 빙하로 덮인 영구동토를 제외하고는 한 여름에는 초목이 살아가고 온난화의 영향으로 나무도 자라는 곳도 나타나게 되었다. 툰드라(tundra, 凍土帶)의 흙(gelisols)은 여름철 얼음덩이가 녹으면 생물이 활동하고 겨울에는 흙속에 물이 얼어 표층으로 얼음덩이를 밀어 올리고 틈새를 만들기도 한다.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은 열대지방은 적색토(red earths, ground-water laterite, latosols, kraznozems, kaolisols, zheltozems, sols ferrallitiques, ferralsols)가 발달하여 시대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러 왔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분류방법(soil taxonomy)이 정비되었다. 이 흙(oxisols)은 분해와 용탈이 심해 표층에서 규산이 용탈되고 철과 알루미늄만 남아 흙색이 적색이고 단단한 판상구조의 비옥도가 매우 낮은 문제의 흙이 된다.

지온은 생물의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50㎝ 깊이 흙에서 온도를 흙의 온도상(soil temperature regimes)으로 규정하여 흙을 분류하는데 이용한다. 열대상(hyperthermic)은 연평균 지온이 22℃ 이상이고 온대상(mesic)은 8~15℃ 사이에 있고 한대상(cryic)은 0~8℃ 사이에 분포하여 동토에서 여름철 풀을 자라게 한다. 기후는 자연생태계를 조정하여 연면하게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글 신제성 흙살림 고문

발행소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앵천리 528) | **발행인·편집인** 이태근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본부** (367-911)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앵천리 528)·전화 043)833-8179·전송 043)833-2959 **오창사무소** (363-885)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363-923)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율다락말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367-912)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전송 043)833-5007

“농부들이 자긍심 갖는 쌀이 좋은 쌀”

조유현 대표는 쌀을 보급종별로 지역별 고급브랜드화 해, 세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쌀로 지은 밥을 먹고 오감이 풍족해져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

골든퀸(예비명)이라는 새로운 벼 품종을 개발한 조유현 ㈜시드피아 대표의 소박한 바람이다. 골든퀸은 밥을 지을 때 팝콘향이 나 입맛을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고품격 향미다. 우리나라 쌀의 대부분은 향이 없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지만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일반 메벼 아밀로스 함량 16~19%, 골든퀸 ±12.5%) 밥이 차지고 윤기가 흘러 밥맛이 좋다는 것도 장점이다.

고품격의 향미 ‘골든퀸’ 개발
구수한 팝콘향에 윤기 잘잘
일본 품종으로부터 독립 희망

■ 향이 나는 쌀을 만들다

조 대표는 골든퀸을 육종하기 위해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일본에서 유전자원 개발관리를 전공한 덕분에 세계 각국의 자원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때 향을 갖고 있는 복합기능성 쌀에 눈을 떴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향에 대한 관심도 깊어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향미 품종은 700종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400종 정도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쌀을 생산하는 기술과 생산량, 미질은 높은 수준이지만 향에 대해선 아직 연구가 덜 됐다.”

향미는 정신안정과 함께 식욕을 자극하고 어느 정도 중독성을 갖는 특성이 있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각 나라마다 향에 대한 강도와 특성에 대해 기호적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강한 향에 거부감을 느끼는 편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쌀을 육종하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골든퀸의 경우 그 모본이 되는 향의 원천은 수집한 야생 재래종에서 가져왔다. 하지만 재배종이 아니다 보니 현재의 재배환경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적응시켜야 하고 그 향도 완화시켜야만 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20년 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팝콘향의 은은한 천연의 향을 갖게 됐고, 추청보다 10% 이상 수확할 수 있게 되면서 상품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유기농 재배는 흙살림과 협력하고 있다.

■ 행복한 쌀을 꿈꾸다

“비싼 쌀은 일단 맛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좋아해야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조 대표는 골든퀸이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쌀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이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맛있어야 하고, 또한 가공식품으로도 활용이 무궁무진해야 한다. 골든퀸은 향이 좋고 윤기가 흐르면서도 노화가 더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고급 초밥이나 김밥, 즉석밥이나 빵의 재료로도 쓰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한식의 고급화로 또다른 한류열풍을 불러올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세계 속에 우리 쌀을 자랑하려면 농부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쌀이어야 한다. 이는 바로 좋은 쌀을 심고 가꾼다는 뜻이다. 골든퀸이 바로 이런 좋은 쌀이기를 희망한다.”

골든퀸에 대한 이런 바람은 고시히까리나 추청과 같은 일본 품종의 도입으로부터 벗어나 품종의 독립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와도 겹쳐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 쌀이 보급종별로 지역 특산화가 이루어져 지역별 고브랜드로 자립할 수 있을 때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골든퀸을 보면서 온가족이 밥상 앞에 모여 한 끼 식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오감만족 쌀이 많아지기를 꿈꾸어본다. 구입문의 : 흙살림 푸드 080-858-6262.

글 이방현 기자

정밀하고 신속한 흙살림 **안전성분석안내 [공인분석기관]**

[흙살림부설연구소]는 친환경 농업 및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분석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분석항목		*분석비(원)	분석기간(일)
잔류농약 (농산물 및 토양)	단성분	1 항목	110,000	3~14
	다성분	102 항목	140,000	
		177 항목	220,000	
		245 항목	280,000	
유기질 비료 및 퇴비	유기물, 중금속, 발아율 등 1개 항목		4,000~40,000	5~14
토양 이화학(시비처방서 포함)	질소 등 9항목		30,000	3~7
토양 중금속	카드뮴 등 유해 8성분		88,000	
GMO	콩		150,000	3~10
	옥수수 및 혼합품(옥수수+콩)		200,000	
쌀·현미 품종검사	정성	맵쌀	100,000	3~10
	정량	맵쌀	200,000	
		찹쌀	300,000	
미생물	일반미생물 1종		20,000	7~14
	병원성미생물 1종		30,000	

*분석비 : 부가세 별도

협약을 통한 **분석비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 잔류농약 | 043-292-8179 (담당 : 박인영, 연경호) · 일반 및 병원성 미생물 | 070-4035-4659 (담당 : 최미숙)
상담 · 중금속 및 퇴비 | 070-4035-4658 (담당 : 김준근) · GMO, 쌀현미품종, 토양이화학 | 070-4035-4658 (담당 : 김준근)

흙살림 미생물배양 **배지종균 공급시작**

제품구성
· 흙살림 바실러스 메디움 및 종균
· 흙살림 유산균 메디움 및 종균
· 흙살림 효모 메디움 및 종균
· 흙살림 광합성균 메디움 및 종균
· 흙살림 방선균 메디움 및 종균

제품 특징 및 효과
· 20년간 미생물 연구와 개발로 탄생한 전문배지 및 종균 배양 세트
· 미생물 배양에 최적화 된 균일하고 안정된 배지
· 고밀도 배양이 가능한 배지 및 종균 공급
· 다량의 효소와 생리활성물질 분비

배양문의
· 양병근 박사 | 070-4035-4658

구입 및 공급 문의 | 043-216-8179 농자재 사업본부

“유기농자재 실험할 시범포 운영하자”

현장 목소리 - 김용현 전남친농연 회장

김용현 회장은 올해 2014년부터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으로 연합회를 이끌고 있으며, 2016년 전남에서 개최되는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추진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흙살림 현장농민연구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김용현 회장으로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문 : 먼저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부터 소개해달라.

답 : 전남은 전국 친환경 생산면적에 약 5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7만여 명이다.

문 : 흙살림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

답 : 1998년경 이태근 회장님이 목포대 친환경작재 전시회에 오셔서 만남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 : 작물 재배에 있어 신안군만의 특징이 있나.

답 :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신안군의 경우 토양 내 게르마늄 분포가 세계최다 지역이다. 게르마늄의 국내 분포 맥을 보면 신안에서부터 지리산 포항을 거쳐 신의주로 이어지는데 이 중 신안이 가장 높게 분포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토양에서 재배한 작물에는 게르마늄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 농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장성, 당도, 강도, 맛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 : 병해충 관리는 어떻게 하나.

답 : 주로 등록된 자재로 방제를 하고 있다. 여기서 흙살림에게 하나 제안을 하고 싶다. 현재 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다. 판촉 및 영업활동도 매우 활발한데, 다들 자사 제품이 좋다고만 하는데 비교실험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면 답변이 함흥차사다. 일회성 판촉으로 인해 결국은 사용 농가만 비용이나 효과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 과거부터 자재 시험용 시험포 운영을 하고 싶었다. 친환경 농업에 해박한 농민이 아닌 경우 대부분 지효성 효과를 지닌 유기농업자재를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버린다. 이에 시험포를 운영하여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면 농민이나 농자재회사 모두 이익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신안에서는 흑색썩음병이나 노균병과 선충, 고자리파리, 굴파리, 총채벌레등의 해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적절하게 방제할 수 있는 약제가 있으면 같이 시험하기를 원한다.

문 : 친환경 농업을 하는 이유는.

답 : 친환경농업은 큰 돈을 벌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돈보다 공익적 목표가 더 크다. 얼마전 친환경단지 주변으로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매우 감격하였다. 15~2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친환경농업은 이러한 생태복원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현재 150ha 단지 내에는 미꾸라지와 새우, 뱀등이 서식할 정도로 생태가 복원되어 있다.

유기농업에 비판적인 보도는 인증절차만 까다롭게 바꿔 포기하는 농민만 늘뿐이지 친환경 농업 발전에 도움이 전혀되질 않는다. 같은 보도라도 정직하게 잘 하는 농가도 비중있게 보도를 해야 발전을 할 수 있다. **글 류훈희 유기농연구소 연구원**

친환경농업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지난 2014년 10월 1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 중 일부개정부분을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개정 2014.10.1.〉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짚, 왕겨, 쌀겨(추가) 및 산야초	○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추가)	○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 천연에서 유래할 것 - 엽면(葉面) 시비용으로 사용할 것 -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추가)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제조용, 버섯재배사 등 소독용에만 사용할 것(삭제)
○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추가)	
○ 에틸렌(추가)	○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하여 사용할 것(추가)

2014년 사후관리교육 일정 및 출하실적보고 안내

한국농식품인증원에서는 2014년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사후관리교육을 진행합니다. 인증농가에서는 아래의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육대상자에게 교육안내문 우편발송)

기별	일자	시간	장소	대상인원
1기	2014. 12. 8(월)	14:00~16:00	충북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1층 농심관(소강당)	40명
2기	2014. 12. 9(화)	14:00~16:00		40명
3기	2014. 12. 11(목)	14:00~16:00		40명

■ 근거: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별표 1] 3. 인증업무규정 – 마.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 7)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인증농가는 연말에 인증기관으로 출하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증원 소속농가는 한국농식품인증원 홈페이지(www.kafc.kr) 상단 신청서식에서 출하실적보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2014년 12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admin@kafc.kr)로 2014년 인증품에 대한 출하실적을 인증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43-212-0934, FAX 070-8677-3320)

수도용 싹나라
목록 공시품
20L
수도용 싹나라
친환경 유기재배용 수도 상토
친환경유기농업자재 등록
국내 최초 유기농업용 수도상토
다루기 쉬운 준경량 상토
탁월한 통기성 및 보수력
포 당 모판 8장 채움 (어린 묘 기준)
주문생산 : 미리신청받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원예용 싹나라
목록 공시품
50L
원예용 싹나라
친환경 유기재배용 원예범용 상토
친환경유기농업자재 등록
안전한 친환경 원예 육묘
뛰어난 통기성, 보수성, 보비력
각종 천연 영양 성분 함유
흙살림 잘잡아
목록 공시품
5kg
흙살림 잘잡아
토양처리용 살충제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 등재
뿌리가해 해충 방제에 효과적
입상형태로 기계 살포 가능
공시-3-5-15 / 식물추출물 함유
흙살림 잘잡아
목록 공시품
모판처리용 2kg
2kg
흙살림 잘잡아
모판처리용 살충제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 등재
강력한 살충력을 지닌 식물추출물 함유
입상형태로 이앙 당일 모판처리
공시-3-5-15
구입 및 문의사항 043-216-8179 | 흙살림쇼핑몰 http://shop.heuksalim.com | 입금처 농협 323-01-063992 (주)흙살림

흙살림 청주센터 시대 열었다

2014년 흙살림 5대 뉴스

흙살림 유통센터를 청원구 북이면으로 확장이전하면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보다 원활해졌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으레 사용하는 말이 다사다난이다. 하지만 흙살림이 걸어온 2014년을 돌이켜볼 때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을 듯하다. 대외적으로는 올 여름 KBS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담은 다큐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등 친환경농업이 위기를 맞이한데다 대내적으로는 유통센터의 이전, 연수원 개원 등 굵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2014년 흙살림의 주요 5대 뉴스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1 청원구 북이면에 유통센터 확장 이전

지난 5월 21일 충북 청원구 오창의 유통센터를 청원구 북이면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보다 원활해졌다. 유통센터에서는 친환경꾸러미 직거래 사업을 비롯하여 직매장사업, 친환경학교급식과 대형할인점, GS슈퍼 등에 친환경유기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흙살림은 이번 이전을 통해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확대를 도모, 도농·환경·생명 살림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 흙살림 연수원 개장

지난 7월 4일 충북 괴산군 불정면에서는 흙살림연수원 현판식이 열렸다. 흙살림연수원은 흙살림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생산농가 농민을 비롯해 친환경 유기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흙살림의 철학과 비전, 친환경 유기농업의 당위성과 전망 등을 교육하는 장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유기농 관련도서 5,000여권을 소장하고 있는 유기농 도서관도 문을 열었다.

3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지난 1월 7일 흙살림유기농연구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는 '안전성검사기관(유해물질 분석, 농산물(잔류농약 분야))'에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기합성농약에 대한 안전성검사 업무를 통한 지역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해 오고 있다. 현재 유기농연구소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및 GMO검사 외 다수의 검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자재와 관련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및 성분검사를 하고 있다.

4 꾸러미 200회, 신문 200호

흙살림 꾸러미가 지난 5월 마지막주에 200회를 맞았다. 2010년 4월부터 시작해서 쉼없이 달려온 결과였다. 생산농가에겐 더 많은 혜택을, 소비자에겐 보다 값싸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이 통하면서 가입회원들은 끊임없이 늘어났다.

흙살림 신문도 지난 3월 200호를 발간했다. 1992년 6월 11일 책자 형태의 지령 1호 〈흙과 미생물〉을 발간한 이후 21년 9개월만이었다. 흙살림 신문은 200호를 맞아 보기 편하고 휴대하기 쉬운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변신했다.

5 제1회 흙살림상 제정

올해 창립 23주년을 기념하면서 유기농업에 힘써 온 농민들을 대상으로 '흙살림상'을 신설했다. '흙살림상'은 유기농업을 실천하며 기술을 개발, 보급, 확장하는데 큰 기여를 한 농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올해 그 첫 번째 수상자로는 충북 음성군에서 유기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성기남 음성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이 선정됐다.

흙살림 자재 직접 써보니 …

땅만드는덴 균배양체 최고

김성태(충북 충주)

15년 전부터 균배양체를 사용해왔다. 토양 미생물을 이용해 땅을 만들면 관리만 조금 해줘도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량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즉 땅만들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흙살림 균배양체는 땅 만들기에 정말 좋다. 이맘때쯤 균배양체를 뿌리고 나서 아침 일찍 보면 뿌옇게 올라오는데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이렇게 좋다보니 몇 년 후 땅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균배양체를 쓸 일이 점점 줄어든다. 이거 흙살림에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다. 하하. 어쨌든 그 덕에 균배양체 사용량이 줄어들었지만 유기 상토는 흙살림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이지만 작정을 하고 찾아온 것이다.

그럼에도 요즘 유기농 자재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흙살림도 이젠 판매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듯싶다. 그런 의미에서도 내년 괴산세계농산업엑스포를 통해 흙살림이 재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냄새 구수해 좋은 느낌

박종원(경북 의성)

2000년 초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곳저곳을 찾던 중 흙살림을 알게 돼 회원에 가입했다. 이때부터 균배양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엔 오이 하우스 900평 정도에서 농사를 지었다. 현재는 토마토 1500평을 포함해 전체 2400평 정도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다. 2003년에 무농약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 유기농자재 같은 경우 각 지자체별로 그 지역의 자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자재를 쓰게 되지만 균배양체만큼은 흙살림이 독보적이어서 계속 써왔다. 일단 냄새가 구수해서 좋은 느낌을 받는다. 가장 좋은 점은 가스 피해가 없어 안전하다는 것이다. 작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게 믿고 쓸 수 있는 자재라면 대환영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무농약에서 유기인증으로 올라서고 싶은데 양분 공급이 부족해서 엄두를 못내고 있다. 흙살림이 재배력을 갖추어 매뉴얼화 시켜주고 그에 맞는 속효성 추비 자재나 칼슘 제재를 공급해준다면 좋겠다.

축사 악취 줄여준 '도움이'

김학득(충북 음성)

음성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산란계 3000수를 기른다. 지난해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흙살림과는 10여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지인의 소개로 '슈퍼도움이'를 알게되어 지금까지 쭉 써오고 있다.

사료에 슈퍼도움이를 첨가해 닭들에게 먹이고 있다. 소화를 돕고 분뇨의 질을 개선한다고 해서 사용한다. 농민이 직접 소화율이나 악취 정도를 측정해서 그 효과를 알아볼 수는 없다. 다만 우리 농장을 찾는 사람들이 다른 농장에 비해 냄새가 덜 난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래서 10년 간 꾸준히 찾고 있는 것이다.

내가 생산하고 있는 달걀이든 다른 농산물이든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농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흙살림이 친환경 생산자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또한 발전해가기를 희망해본다.

혼자 쓰기 아까운 액비세트

정규태(충북 청주)

2010년부터 흙살림 액비제조세트를 사용해 왔다. 흙살림 오창센터와 가까운 청주에서 풋고추, 아욱, 적아스파라거스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자가액비제조세트를 알고 나서부터 쭉 1년에 서너차례 구입하여 추비로 그것만 사용한다. 빛모음, 활인산, 생선아미노산, 당밀, 바이오숨, 해초에 천연황산가리와 들깻묵을 같이 우려서 배양하면 농도가 꽤 진한 편이라 하우스 한 동 당 잘 배양 된 액비를 10리터만 물 25말에 희석하여 사용한다.

작기 중 여름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 나머지 계절에는 보름에 1번 정도 꾸준히 사용하는데 요즘 같은 때는 흡수가 더욱 잘된다. 자가액비세트를 쓰고부터 확실히 생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작물이 튼튼해짐을 느낀다. 가격도 타 유기농업용 자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편이라 주위 농가에도 적극 추천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4일 충북 괴산에 위치한 흙살림 토종연구소의 생태논을 찾은 데발 뎁 대표는 다양한 한국의 토종벼가 심겨진 모습에 큰 관심을 보였다.

“토종은 다양성의 가치를 지켜낸다”

인도 최대의 토종 종자은행인 브리히(Vrihi - 산스크리트어로 벼를 뜻함)를 설립한 데발 뎁 대표가 지난 10월 한국을 찾았다. 충북 괴산에서 펼쳐진 제4회 아시아 유기논농업대회에 참가하고 흙살림 토종연구소도 방문했다. 이번 인터뷰는 그가 유기논농업대회에서 발표한 사례를 토대로 토종연구소에서 직접 이루어졌다.

■ 브리히의 탄생

벼 유전적 다양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또한 현지 외 종자 은행의 실패를 참작하여, 1997년 인도에서는 농민을 위한 최초의 비 정부 벼 종자은행인 브리히를 설립하였다. 브리히는 현재 인도 최대의 토종 종자은행으로 다양한 토종 종자를 이용한 경작을 촉진하고, 사라져가는 비상업적 목적의 종자교환 문화를 재구축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농민이 직접 농토에서 광범위한 토종 종자를 확보, 보존할 필요성에 의해 브리히는 탄생되었다. 1960년대 녹색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생산성이 높은 작물 종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종자들이 몇몇 중요한 유전자를 보유한 다수의 품종을 대체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까지, 인도 동부는 수천 가지 벼 품종의 본산지였다. 추산에 따르면 웨스트 뱅갈 농민들은 5500여 토종종자를 생산했으며, 이중 4800여종은 필리핀 로스바노스에 위치한 국제미작연구소(IRRI)로 보내졌다. 마찬가지로 5000여 토종 종자의 경우 인도 북동부 주에서 소위 아삼 콜렉션의 일환으로 1960년대 국제미작연구소로 보내졌다. 그러나 이중 어느 것도 현재 인도 동북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서로 다른 주에 걸쳐 농민의 농토에서 여전히 살아남은 토종종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에 관한 공식적 기록도 없다.

웨스트 뱅갈의 경우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벼 종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계자연기금 인도 동부 사무소가 1995년 웨스트 뱅갈의 서쪽 및 북부 지구에 위치한 외딴 마을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부족민의 규모 및 농업 용수를 사용하지

토종은 척박한 환경의 가난한 농민들의 보루
인도 최대 토종 종자은행 브리히 센터 설립

않는 농장의 비율이 가장 큰 마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거주 인구가 많으면서도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은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현지화된 종자가 척박한 환경 하에서 현대적 품종보다 생산성이 더 높고 이러한 부족 공동체 농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너무 가난하여, 현대적인 벼 품종 재배에 필요한 값비싼 농화학 제품을 구매할 수도 관개수로를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토종 작물 품종이 최후 보루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지역은 토종 품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왜 토종인가

문 : 한국에서도 토종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없다. 수확이 많거나 자연재해·병해충에 강한 개량종 또는 맛이 좋거나 기능성이 풍부한 외래 품종들을 대부분 재배한다. 이런 농가들이 토종으로 다시 돌아올 만큼의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는가?

답 : 인도의 한 마을에서는 예전에 임신한 여자들에게 먹였던 쌀이 있었다. 최근 이 쌀을 분석해보니 철분이 많이 함유된 것을 알게 됐다. 다국적 종자 기업들이 기능성 쌀이라며 수많은 연구비용을 들여 비타민A가 많은 쌀 등등을 개발하지만 우리 토종쌀 중엔 그보다 더 많은 비타민A를 함유한 품종도 있다. 우리 토종을 이용한다면 다국적 종자 기업의 종자를 구입하고 또 그것에 맞는 농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필요에 따라 선택해 재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목표는 무엇인가

문 : 이렇게 토종 종자를 수집·보존하고 농민들 간에 교환을 통해 확대해가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답 : 우리의 목표는 토종 중 기능성이 탁월한 품종을 찾아내 그것을 상품화해서 개량종이나 외래 품종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벼 유전적 다양성을 지켜내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해나가는 것이 목표다. 토종벼 품종 중 다수는 현재 토양 및 가뭄, 홍수 같은 기후 조건과 현지의 토양 내 염분도에 적합하다.

인도의 지방 음식 문화의 경우 쌀을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는데, 이러한 조리법에 맞는 특별한 특정 품종을 재배해왔다. 조리법이나 소화가 잘 되는 것 등등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서 품종이 달라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몇몇 토종 종자의 경우엔 미적 가치 때문에 살아남은 경우도 있다. 순전히 종자 겉껍질의 다양한 색깔 덕분에 존재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또 품종별로 다양한 냄새를 지닌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종교 행사 및 문화 축제와 관련하여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본디 다양성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제적인 혜택이 없더라도 자신들의 토지에서 다양한 종자를 결합해서 함께 재배해 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런 다양성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싶다.

“농사는 소비자와 한마음으로 짓는 것”

유기농업 원로에게 듣는다⑨
서순악(영동여성농업인센터대표)

“난 염세주의자였다. 하지만 논이 나를 염세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
충북 영동에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서순악(69) 대표가 우스운 이야기를 건네겠다며 말씀하신 첫마디다. 하지만 30대 젊은 나이의 여성이 연고도 없는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짓게 된 사연부터 지금까지 일구어온 농장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가벼운 농담거리가 아니었다. ‘그대가 나’임을 깨우치게 만든 서 대표의 농사 이야기를 들어본다.

서순악 대표는 자신이 직접 일군 1,500평의 농장에 야생화를 키우고 있다.

30대 홀몸으로 내려와 유기농업 시작
힘들었지만 뭇 생명과 함께 하니 행복

■ 고통 속에서 희망을 보다

서 대표는 중학교 졸업 후 5년이 지나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또 스스로 돈을 벌어 진학하면서 늦깍이 대학생이 됐다. 대학원은 35세가 되어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사회가 부정부패가 만연한데다 사상 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나자 염증을 느껴 대학원 등록금을 가지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충북 영동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등록금으로 897평의 땅을 구입했다. 논 400평에 트럭 60대 분량의 산에 있는 풀을 모아다 집어넣었다. 나머지 397평 포도밭에는 낙엽이란 낙엽을 다 긁어모아 뿌렸다.

그리고 첫해 농사를 시작했다. 논에 엎드리면 벼 잎에 눈을 찌르고 팔을 긁히고, 산 풀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당시 염세주의자였던 서 대표는 이 고통 속에서 벼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데 네가 잘 살아남아 영글지 않으면 난 대망신이다’면서 다독거리며 농사를 지은 것이다. 그때 생각으로 첫해 농사를 실패하면 다시는 농사를 짓지 않을 결심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풍년이 들었다. 400평 논에 10가마니(가마니 당 80kg) 넘게 생산했다. 이 경험이 서 대표를 염세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 희망이 있는 고통은 그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천당으로 가는 길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 힘이 들어도 유기농이다

서 대표가 영동으로 내려올 때 들고 온 책이 있었다. 바로 일본의 여류작가 아리요시 사카와가 쓴 〈소설 복합오염〉이라는 책이다. 식품공해 및 각종 공해 상황을 파헤친 보고서로 농약과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과 유기농업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읽은 영향이기도 하지만 애시당초 서 대표에게 농사는 모두 유기농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지은 농산물을 먹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 방법이 없기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서 대표의 생각이었다. 더군다나 1980년대 초반엔 포도가 귀한 과일이었다. 임산부나 환자들이 먹던 것이기에 건강하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산한 유기농 포도는 백화점에 유통됐다. 처음엔 무시하던 사람들던 이것을 지켜보면서 유기농법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풀을 베고 벌레를 일일이 손으로 잡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뒤돌아서면 또다시 자라는 풀과 땅 속에서 기어나오는 벌레들 탓에 허리 한 번 펼 짬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무릎 연골이 다 닳아졌을까. 그래도 부직포를 쓰게 되고 흙살림에서 친환경 자재를 만들면서 농사짓는게 한결 쉬워졌다.

■ 가공사업에 도전하다

건강한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애를 쓰던 중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렇게 되면 포도 수입도 늘어나 농사가 힘들어질 거라 예상하고 1993년에 가공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10년이 넘게 쌀을 선물했던 논에 공장을 지으려 시멘트를 부을 때는 눈물도 흘렸다. 공장이 지어진 이듬해 포도 10kg에 13,000원으로 계약하고 가공에 들어가려했는데 시세가 8만원까지 치솟았다. 농가로부터 포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지라 첫해 가공을 포기해야만 했다. 둘째 해부터 조금씩 포도 가공을 시작하면서 늘려가던 중 마을에 축사가 생겨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서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공장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게 됐다.

그 뒤론 주위의 귀농인들이 어린이집을 짓고 원장을 맡아 달라고 해서 2년간 원장 생활을 지내기도 했다. 이 경험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짓고 운영하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엔 어린이집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을 찾기 힘든 시골의 안타까운 현실이 이곳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 이만큼이면 잘 살았다

농사라는 게 결코 혼자서 잘 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농산물을 유통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이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서 대표는 “소비자는 잎이고, 실무자는 줄기며, 생산자는 뿌리”라는 표현을 쓴다. 모두가 한 나무 안에 사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잎이 자기 잎에만 영양을 저장하면 단풍이 들어 떨어져버리고, 뿌리가 잎에 영양을 주지 않고 자기만 영양분을 섭취하려 하면 썩어버리며, 줄기도 양분을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고 자기만 챙기면 혹이라는 암이 생겨 죽게된다는 것이 서 대표의 생각이다. 그렇기에 모두가 유기체라는 걸 깨우치고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다독거릴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서 대표는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도농교류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의 뼈를 갈아서 소비자를 먹이는 것이다. 도농교류란 농사가 힘들다는 것을 배우는 장이다. 단지 수확의 기쁨만 체험하는 것은 안된다.”

서 대표는 현재 1,500평의 밭에 야생화를 키우고 있다. 농사짓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산새가 풍경을 치고, 다람쥐가 나무에서 장난치고, 도롱농이 개울에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천하태평이다. 더군다나 나의 정성으로 남이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행복하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남도 나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대가 바로 나임을 지금부터라도 믿어보세요.”

글 이방현 기자

동절기 배수 불량하면 저온 피해

텃밭 정원 가꾸기 <10>

겨울 실내조경을 위한 기초 준비 필요

겨울의 문턱에 서서 집밖의 정원들이 겨울잠에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실내공간에 둔 화분 하나가 온 집안이나 지하공간 또는 사무실의 분위기를 바꾸어 주기에 충분한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실내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환경에서만이 실내조경을 통하여 기대하는 공기정화효과나 시각적 효과 등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새집증후군이나 미세먼지, 악취 등에 대하여 식물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첫째로 빛의 조건이 충분하고 또 광도에 적합한 식물이 선정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수와 환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건강하고 싱그러운 식물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온도로는 낮이 23~25℃, 밤에는 16~18 ℃ 가 적합하다. 겨울의 경우에는 최소한 10 ℃ 이상, 여름철의 경우에는 30 ℃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물의 생리적인 측면에서 밤과 낮의 온도차가 15℃ 이상이 될 경우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급격한 실내외의 온도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실내습도는 70 % 내외가 적절한데, 사람이 생활하기에 쾌적한 습도가 50 % 내외임을 감안할 경우 자주 식물 주위에 분무기를 사용하여 물을 공급 하여 식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습도는 특히 각 식물의 생리적 특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각 식물의 수분 요구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과도한 수분공급 및 배수불량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동절기에는 저온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완전하게 배수가 된 이후로 저온환경이 되도록 충분한 배수에 유의하도록 한다.

빛의 강도를 보면 생존을 위한 최소조도는 500 Lux, 생육을 위한 최소조도는 1000 Lux 내외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주택이나 사무실에서 에너지 경감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자연채광을 실내에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물의 생육에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원으로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저전력, 장수명, 친환경적인 장점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실내조경공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장점을 보유한 LED 조명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속성재배나 기능성 재배 등에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빛과 물의 요소와 함께 실내에서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 또한 꼭 필요로 한다. 이것은 환기를 통해서 식물은 대기 중에 공기와 습기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통풍은 탄소동화작용을 억제하고 수분 부족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무실 1층의 휴게공간에 아트리움을 조성했다.

◀지하 휴게공간에 조성된 실내조경 사례.

▶ 지하철역의 천창을 통해 실내환경을 조성했다.

빛과 수분 그리고 환기를 통하여 실내식물이 생육하기 위한 기본요소가 충족이 되었다면 다음으로는 토양의 선정과 이 토양을 통한 적절한 시비관리가 필요하다. 화분을 사용하거나 식재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공토양이 많이 사용되는데, 보수성이나 통기성 및 투수성이나 보비력 등을 고려하여 펄라이트나 피트모스 등을 주로 사용한다. 이때 버미큘라이트나 화산모래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배수층이나 멀칭으로 화산자갈을 사용해도 좋다. 식재시에 유의할 사항으로는 비슷한 생육환경을 가진 식물끼리 배식하여야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수분관리의 경우에는 흙과 식물의 상태를 살펴보고 윗 흙이 말랐을 때를 관수시기로 판단한 후 물을 공급하도록 한다. 과다한 수분의 공급은 공기함량을 감소시켜 뿌리의 발달을 저해하고 지나친 경우에는 뿌리가 썩게 된다. 겨울의 실내공기가 건조하여 공중습도가 낮아지면 식물체 표면의 수분증발량이 많아지므로 물의 공급량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각 식물별 공중습도는 선인장류 30~40 %, 동양란류 60~70 %, 열대관엽 식물류는 70~80 %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글 신인환 조경기술사 및 흙살림 도시농업자문위원

꾸러미에 생선도 있어 신기해요

블로그 살짝 엿보았더니 …

흙살림 꾸러미는 신기하게 생선이 있더라고요. 귤이랑 토마토도 같이 와서 좋았는데 구성이 참 알찬 듯 ^^
흙살림 꾸러미에서 얼갈이배추, 어린잎채소, 찰옥수수알을 이용해 한상을 차려봤어요.
얼갈이배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데친 다음 된장에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저희집 된장이 다 떨어져서 긁어긁어서 무쳤더니 색이 저래요 ^^;;; 된장이 없어서 된장 사러 장을 보러 가야겠네요. 그리고 화학첨가물 없는 조미료를 간을 봐가면서 넣어주면 끝~.
새싹채소를 이용해서 새싹비빔밥을 하려고 하는데요. 꾸러미에 있던 건찰옥수수를 물에 불려서 밥을 했어요. 옥수수밥은 처음 해보고 처음 맛봤는데 완전 맛나더라고요. 간단하게 새싹채소만 씻어서 밥 위에 올리고 계란후라이 올려줍니다. 계란후라이 반숙 정말 예술이죠? ㅎㅎ 그동안 얼갈이배추된장국은 완성이 되었네요. 비빔밥 먹을 때 국물 꼭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 오늘 밥상은 채소가 많아서 웰빙밥상 ㅋㅋㅋ 왜 이리 뿌듯한지요~ 고기 좋아하는 저지만 이렇게 먹어주면 왠지 건강해지는 느낌 ^^ 맛있는 새싹비빔밥 사진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오네요 ㅎㅎ 비빔밥에 참기름이 빠지면 섭하죠~ 계란후라이 위에 참기름 뿌려줍니다. 고추장 넣고 쓱쓱 비벼서 한잎 냠냠냠 ..... ㅎㅎㅎ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얼갈이배추 된장국도 호로록호로록 먹어주고요~ 꾸러미에 새싹채소 보고 이걸 뭐해서 먹지? 하고 고민했는데 비빔밥을 해먹으니까 맛도 있고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계란후라이 하나만 딱 얹어주면 훌륭한 밥상 완성~!!
출처 블로그 <행복해진's 버라이어티해진>

“나물·채소 골고루 먹어 좋아요”

함박양 이유식 하던 시절부터 흙살림을 이용해오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지내다 서울로 돌아와서는 다시 흙살림 꾸러미를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꾸러미의 장점은 제철의 싱싱하고 믿을 수 있는 채소들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장보러 가면 절대 사오지 않을 나물과 채소들도 골고루 먹을 수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도착한 꾸러미인데요! 만약 제가 마트나 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면 세발나물은 절대로 사지 않을 거에요. ㅋㅋㅋ
오늘은 수요일. 내일 새로운 꾸러미가 오는 날인데요! 지

난 주에 온 것 들중 다 먹고 토마토랑 브로콜리가 남아있네요! 오늘 저녁엔 꼭 먹어야겠어요~~~. 아, 서리태 콩은 뭘 해먹을지 고민해야겠네요 ㅎㅎㅎ
내일 꾸러미가 도착하면 열심 블로거의 마음으로 박스샷 한 번 찍어보겠어용. ㅋㅋㅋ
출처 블로그 <함박마미>

명품백보다 좋은 꾸러미 박스!

국내산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 꾸러미에요. 박스에 가득 채워져서 도착한 선물박스. 일주일장 보지 않고서 요리 가능한 제철 재료들로 채워진 내용물들입니다.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국내산 콩으로 만든 찌개용 두부 한 모에요. 된장찌개에 넣거나 콩나물국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건고추잎이에요. 말린 나물은 물에 불려두었다가 무침으로 냠냠. 무농약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무침이나 고춧가루 팍팍 넣고 콩나물국 끓이면 겨울감기 뚝! 친환경 토마토, 찰진 토마토에요. 큼지막한게 하나 맛보았는데 새콤하니 맛이 좋아요. 토마토 쥬스나 토마토 샐러드로 만들면 더더더 맛날 것 같아요. 콜라비 요거 비싸서, 저 자주 못사먹는데 ㅎㅎ, 어머나 좋아라 콜라비는 샐러드로 먹을 때가 전 제일 맛나더라고요. 무말랭이. 겨울무가 달달하니 굿굿. 무말랭이는 불려서 요리하거나, 아니면 믹서기에 갈아서 조미료로 써도 된답니다. 겨울 긴 밤~~~ 허기진 뱃속을 채워줄 호박고구마. 오븐에 구워도 맛나고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나답니다. 무항생제 계란, 깨지지않게 포장되서 왔어요. 동생의 야식으로 종종 삶은 계란을 준비하거든요. 오늘밤 동생 야식으로 당첨! 이렇게 알찬 박스, 명품 백을 받을 때보다 더더더 전 이게 좋아요.
출처 블로그 <채소녀's life>

12월 생활꾸러미 이렇게 준비해요

1주차(3일 발송)
단감
유정란
청국장
두부
당근
감자
건가지
빨간통배추
아욱

2주차(10일 발송)
다시마
두부
청국장
콩나물
구운계란
시금치
고추 (꽈리)
느타리버섯

3주차(17일 발송)
유정란
두부
청포묵
미역줄기
쌈채소 (모듬쌈)
냉이 / 부추
깻잎
채도라지

4주차(22일 발송)
곰국
대파
김
햅쌀 - 골든퀸
얼갈이

※ 산지 사정에 따라 품목이 달라질 수 있음.

원전 피해지역 유기농가들의 두 모습

일본의 유기농업 현황 ⑦

'국제유기농업영화제'에서 다큐로 소개

2012년 2월 방사능물질을 걷어내기 위해 작업 중인 후쿠시마의 한 농가.

다큐멘터리 '그래도 씨를 뿌린다'에 등장한 농가. 마을에 남아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 국제유기농업영화제

이번에는 유기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가운데 하나인 국제유기농업영화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유기농업영화제는 일반인들에게 보다 쉽게 유기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유기농업에 관련된 혹은 관심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칼럼니스트, 기자, 관련단체에서의 개인적인 참가와 연구자 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세계 각국의 다양한 유기농업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영화 감독들이 직접 등장하여 영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의 농가들을 초대하여 작은 심포지엄을 통해 관객들에게 보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함께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리고 누구라도 참가가능한 3분 비디오 코너라는 것도 만들어서 개인적인 유기농업 스토리를 알리고 있다.

필자도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유기농업이 아니라 보다 가까이 있는 유기농업 이야기를 알리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 함께 하고자 두 번째 영화제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영화제를 기획하고 세 번에 걸쳐 사회를 맡기도 했다. 또한 KBS와 SBS 스페셜 프로그램을 번역하여 우리나라의 유기농업과 관련된 활동과 실천 그리고 우리의 흙과 자연에 대해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가까이 있지만 유기농업 환경이 많이 다른 두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영화제는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는데 올해도 12월 14일에 동경의 무사시대학에서 열린다.

■ 후쿠시마 사태 이후 '그래도 씨를 뿌린다'

영화제에서는 그간 각국의 소농인 유기농가 이야기에서부터 과거 일본의 농약 사용과 그 위험성에 대한 다큐멘터리, 화학비료로 땅이 손상된 우리나라의 이야기, 유기농산물 학교급식을 마을 전체에 실천하고자 했던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이야기, GMO를 반대하는 미국 농가들의 실천 이야기, 세계 각국의 흙의 중요성을 모은 이야기 등 다양한 것들이 소개되어 많은 반향과 감동을 주었다.

그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었던 것은 2011년 일본 동북대지진과 원전사고 이후의 유기농업 실천 농가들의 삶에 대해 그린 '그래도 씨를 뿌린다'라는 다큐멘터리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원전 사고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화제를 이대로 치를 수는 없지 않겠냐는 자숙 모드의 방향으로 결정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들에게 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리는 기회를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영화제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 그리고 주위에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찾다가 우리가 직접 지금의 상황들을 소개하고 알리자는데 뜻을 모아 그해 여름부터 촬영에 나서기 시작했다. 마침 영화제에 참여하고부터 카메라 촬영 공부를 시작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중심이 되어 인터뷰와 영상의 기록이 이루어졌다. 그 대상으로는 오랜도록 유기농업을 해온 오랜 친구인 후쿠시마 유기농가들이었다.

후쿠시마는 대지진 이후 원전 문제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곳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만 방사능 유출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제 이런 땅에서 더 이상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유기농가가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필자가 2003년 겨울, 석사과정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일본의 유기농업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일본유기농업연구회가 매년 주최하는 유기농업 전국대회가 열렸던 곳이 후쿠시마였다. 심포지엄과 작은 세미나들을 마치고 농업현장을 둘러봤던 지역이기도 해서 뜻깊은 곳이기도 하다.

이 영화에서는 여러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오랜 친구였던 두 농가의 다른 행보가 눈에 띈다. 한 농가는 방사능이 유출되고 농장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을을 지키고 이곳에서 자신의 땅을 회복시켜가면서 농사를 짓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 주위에 여러 농가들과 서로 의지하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간다.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또 하나의 농가는 도저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판단,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기로 하고 나가노로 이주하게 된다. 이분은 원래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한 분이셔서 그 곳에서 그간의 유기농의 경험들을 마을에 전파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필자는 2003년에 이 두 분의 농장도 방문했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한 친구의 이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 둘은 오랜 친구의 끈을 놓게 되는 불상사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그 이후 유기농업 관련 여러 행사들에서 이분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둘은 각각 서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한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한 피해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땅을 포함한 모든 자연을 파괴함과 동시에 오랫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대재앙이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농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씨를 뿌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유기 농가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지금도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는 비단 유기농가들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가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지,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보게 된다. 아무튼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들의 노력에 마음으로 최대한 응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글 김기흥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흙살림 자문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친환경농산물 1호 인증기관

KAFC 한국농식품인증원

Korea Agricultural Product and Food Certification

한국농식품인증원은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농업농가의 참여로 자립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념과 철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 취급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식품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깐깐한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희망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소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1길 7 오창벤처프라자 303호
전화 043-212-0934 전송 070-8677-3320
홈페이지 www.kafc.kr 이메일 admin@kafc.kr

애동지엔 팥죽 말고 팥밥 해먹자

고은정의 농식약동원

~ <전략> 동지(冬至)는 명일이라 일양(日陽)이 생(生)하도다
시식(時食)으로 팥죽 쑤어 인리(隣里)와 즐기리라
새 책력 분포하니 내년 절후 어떠할꼬 <후략> ~
-농가월령가 11월령 중에서

며칠 후면 동지(冬至)다. 동지는 한자의 뜻 그대로 겨울에 이르렀다는 말로 태양이 가장 남쪽으로 기울어져 밤의 길이가 일 년 중 가장 긴 날이다. 동지가 지나면 낮의 길이가 매일 1분씩 길어진다. 그래서 조상들은 태양이 기운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동지를 설날로 삼기도 했었다고 한다. 동짓날 궁에서는 우유와 우유죽(타락죽)을 공신에게 내려 약으로 쓰기도 하고 전약이라 불리는 음식을 만들어 추위에 몸을 보하고 악귀를 물리치는 약으로 먹었다. 그때만 해도 귀했던 우유와 전약의 재료인 소가죽을 구하기 쉽지 않았던 서민들은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먹었다. 동지에 팥죽을 쑤면 가장 먼저 사당에 올리고 방이나 곳간, 장독대, 헛간 등에도 놓아두고 대문이나 벽에는 뿌리기도 했다. 팥죽의 붉은 색이 잡귀를 쫓고 잔병을 없애며 액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조상들은 팥이 같은 과의 콩보다 크기가 작고 붉다 하여 적소두(赤小豆)라고 부르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적소두가 성질은 따뜻하지도 차지도 않으며 독은 없는데 주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배설시켜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하여 몸이 붓는 것을 치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팥은 다양한 종류의 사포닌을 가지고 있어 지방의 분해대사를 도와 비만을 막아주며 통변작용도 한다. 잉어와 함께 끓여먹으면 몸 안의 쓸데없는 수분을 제거하고 소변을 잘 보게 하는 효능이 특히 강해지므로 조상들은 산후에 부기를 빼기 위해 자주 사용하였다. 산후에 젖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의 유즙분비를 돕는 작용도 한다. 하지만 몸에 진액이 부족하거나 자주 소변을 보는 사람, 너무 마른 사람이 팥을 자주 많이 먹는 것이 조심해야 한다. 소음인의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외할머니는 동지에 팥죽을 쑤어 꼭 동치미와 함께 주셨다. 애동지에 팥시루떡을 해주실 때도 언제나 그냥 팥만을 넣는 것이 아니라 굵은 무채를 듬뿍 썰어 넣은 팥시루떡으로 만들어 주셨다. 정조의 어머니인 홍대비가 즐겨먹던 떡이라고 알려진 것을 보면 홍대비는 팥만 넣은 팥시루떡을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팥죽이나 팥칼국수, 팥시루떡을 먹을 때 무로 만든 반찬을 곁들였던 것은 소화가 잘 되게 하려는 조상들의 지혜로 추측된다.

아쉽지만 올해는 윤달이 끼어 있어 음력으로는 10월 말에 동지가 들었으니 팥밥이나 팥시루떡을 해먹는 애동지에 해당한다. 가을무 듬뿍 썰어 넣고 팥무시루떡 쪄서 먹으면 내년에 나에게 올 준비를 하고 있던 액운이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시루떡 찌기 번거로울 땐 팥밥만으로도 훌륭하다. 과학의 눈으로 보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일지 모르나 뭐 어떤가. 매일 해먹는 밥이니 동지라 이름 붙은 날에 조금만 마음을 내서 팥밥 해먹고 귀신과 액운 쫓았다고 생각하면 더 즐거운 새해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니 좋기만 하다.

글 고은정 약선식생활연구센터

올해는 윤달이 끼어 있어 음력으로는 10월 말에 동지가 들은 애동지라 팥죽 대신 팥밥이나 팥시루떡을 해먹는다.

작은 설날 '동지' 봄의 시작 알리다

웰빙식의 최종 진화 '세시음식'

음력 11월은 동짓달이라 하여 새해의 시작을 알려주는 설날로 여겨왔으며 '아세(亞歲 : 작은 설)'라는 별칭도 있다. 밤이 가장 긴 날인 동지(冬至)가 지나면 다시 양(陽)의 기운이 올라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생각했다. 우리 조상들은 계절음식을 통해 약귀를 물리치고 추위로부터 몸을 보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팥죽, 전약을 꼽을 수 있고 음료로는 수정과가 있으며 겨울의 별미인 동치미도 이 시기의 절식이다. 붉은 팥으로 죽을 쑤어 찹쌀로 빚은 옹심이를 나이 수 만큼 넣어 먹었는데 이것은 과거에 동지를 설로 여기던 전통 때문이다. 지방에 따라서는 팥죽을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였는데 이때는 새알심을 넣지 않았다. 전

동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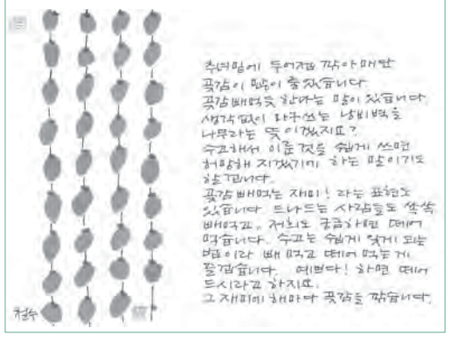
약은 소가죽을 곤 물에 계피, 건강, 정향, 후추, 꿀을 넣고 푹 삶아 묵처럼 굳힌 것으로 동짓날의 궁중 음식이다. 추위로부터 몸을 보하는 작용을 하여 내의원에서 동짓날 왕에게 진상하였으며 이를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전통이 있었다. 식감과 맛, 향이 뛰어나고 칼로리가 높지 않아 현대에도 디저트로 활용이 가능한 음식으로 과거에 중국 사신들도 그 맛을 잊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수정과는 물에 담근 정과라는 뜻으로 본래 차게 해서 추운 겨울에 마시던 전통 별미음료이다. 여러 재료를 달여 꿀로 절인 인삼, 곶감 등의 정과를 넣어 차게 마시는 음료를 일컬어 수정과라 한 것이라 추정한다(시의전서).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 통 계피와 생강을첨가하였으며 오늘날의 수정과는 겨울에 구하기 쉬운 곶감을 주로 이용한다.

동치미는 작고 통통한 무를 통으로 소금에 절여 파, 마늘, 생강, 유자 등 다양한 재료와 함께 넣어 담가 먹던 국물김치의 일종이다. 물김치는 모든 상차림에 빠지지 않는 기본 찬으로 예부터 밥을 뜨기 전에 먼저 국물로 목을 축여 목과 위를 보호했다. 출처 농촌진흥청 인테러뱅 '세시음식'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곶감 빼먹는 재미



● 자급종자 농가를 찾습니다

흙살림 신문이 자급종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자를 직접 자급하고 있는 농가나 그런 농민들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흙살림에 연락을 주세요.
연락처 : 흙살림 사무국 043-833-5004

이달의 흙살림 자재 I

유칼립투스 톱밥

1. 사용분야
 - 축사 바닥 깔개용 (소, 돼지, 오리, 닭)
 - 퇴비 제조용 (가축분뇨, 음식물찌꺼기, 유기질 등)
 - 버섯 배지용
 - 원예용 상토 제작
 - 우드 펠릿 제작, 원료 및 연료로 사용

2. 유칼립투스 나무 압축 미세칩

3. 단위
 - 톤백 당 450kg

축사바닥 깔개로 쓰면 쾌적

■ 특징 및 효과

1) 유칼립투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자체 향이 축사 및 퇴비장 등의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해줍니다.
2) 유칼립투스가 가지고 있는 자체 항균력이 병원균의 번식을 억제하여 깔개 사용 시 가축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3) 유칼립투스 나무의 자체 향과 성분이 모기 등의 해충을 쫓아내는 천연 살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유기질 퇴비 제조 시 탁월한 부숙효과를 보이며 pH 6.9로 토양 산도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높은 수분 흡수율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영양소가 풍부하여 고급 유기질 퇴비의 원료가 됩니다.

■ 유칼립투스 톱밥의 강점

1) 태국 현지 공장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비수기, 성수기 구분 없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2) 유칼립투스 단일 수종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고온(400도) 건조로에서 건조하고 수출 시 방역이 철처히 이루어지므로 각종 해충 및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분석 결과

항목	함량	성분	함량
유기물	80.87%	질소	0.41%
수분	15~20%	인산	0.14%
pH(산도)	6.84	가리	1.26%
EC(전기전도도)	2.10	칼슘	2.36%

■ 흡수력 실험 결과

국내톱밥 50g | 국내톱밥 50g+물 200g | 유칼립투수톱밥 50g | 유칼립투수톱밥 50g+물 200g

실험결과: 국내톱밥의 경우 톱밥 중량의 2배인 100g 이상은 흡수하지 못하였으나 유칼립투스 톱밥(미세칩)의 경우 중량의 약 5배 까지도 흡수가 가능하였다.

이달의 흙살림 자재 II

흙살림 신기한 새싹

어느 덧 텃밭 농사도 마무리되고 내년을 준비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을 만나려면 내년 봄을 기약해야만 하는 걸까요? 흙살림 새싹 키트와 함께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봄의 기운을 한 계절 일찍 만나보세요. 보는 재미와 길러먹는 재미가 있는 흙살림 새싹키트를 소개합니다.

아이들 올바른 식습관 교육에 효과

■ 제품 특징 및 효과

- 물에 뜨는 재배용 천연돌과 배추, 적무, 보리 씨앗 3종이 들어있습니다.
- 씨앗 3종은 농약처리 되지 않은 종자입니다.
- 조그만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교육에 효과적입니다.
- 가정에서 안전하고 손쉽게 새싹채소를 재배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 가정 내 관상용 및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사용방법

- 플라스틱컵에 재배용돌이 컵의 끝부분에서 2cm 정도 되는 높이까지 오도록 물을 채워줍니다.
- 씨앗을 돌 위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때 씨앗이 돌과 섞여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2~3일이 지나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무와 배추는 조금 더 일찍 싹이 틀 수 있으며 따뜻한 곳에 둘수록 발아가 빨라집니다.
- 7일 정도까지 키우고 거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독처리 된 종자가 아니므로 옮겨심을 경우 생장이 불량할 수도 있습니다.
- 4~5일 정도 지난 뒤 새싹을 한 번 잘라내면 다시 자라납니다. 두 번 정도 키운 뒤에 남아 있는 돌과 잔뿌리 등은 화분이나 텃밭 흙과 섞어주어도 좋습니다.

흙살림 송년회에 초대합니다

흙살림이 송년회를 갖습니다. 유기농의 위기라고 할 만큼 험난했던 올 한해를 이겨내느라 땀 흘리신 임직원 여러분들은 물론 묵묵히 힘을 보태주신 후원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무거워진 어깨와 닳아버린 신발을 잠시 훌훌 털어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데 모였으면 합니다. 모두가 함께라면 주저앉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씩씩하게 웃으며 새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흙살림 송년회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및 장소 문의 043-833-5004.

2015년 흙살림 캠페인 주제 공모

'2015년 흙살림 캠페인' 주제를 공모합니다.
2014년 올 한 해는 '한반도 전체의 유기농업화'라는 문구를 내걸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렁이나 오리 농법 등으로 기술이 보편화된 벼농사부터라도 유기농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한반도 전체의 유기농업화를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또한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해 유기농법을 통한 쌀 생산량이 관행농업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하지만 외부 단체와의 연대나 보다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내년 2015년도엔 보다 알차고 희망찬 캠페인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흙살림이 유기농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흙살림연구소(전화 043-833-5004. 이메일 micol112@heuksalim.com)로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흙살림 후원회원입니다*

질 좋은 토종종자 보급으로 고급쌀 재배할 수 있기를 …

— 김생수 (전남 여수)

우연히 흙살림 신문을 보게 되면서 흙살림에 대해 알게 됐다. 이를 통해 흙살림이 유기농업과 토종종자에 대해선 독보적인 단체라는 생각이 들어 후원회원에 가입하게 됐다. 유기농을 찬성하고 교육을 받은 농민들도 실제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적다. 그런 점에서 흙살림의 다양한 활동들은 큰 도움을 준다.
현재 5000평의 논에서 쌀을 생산하는데 모두 유기인증을 받고 있다. 여수에선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는 많아도 유기인증까지 받은 농가는 손으로 꼽는다고 한다. 난 화학비료가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유기농 쌀을 생산해도 가격이 형편없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고급쌀을 키울 수 있도록 흙살림이 도움을 준다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토종 종자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는 흙살림이 농가들에게 종자를 분양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농어촌사회연구소, 흙살림 출발지서 모임

(사)흙살림연구소가 처음 시작한 곳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식구들이 한데 모였다.
(사)흙살림연구소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에 1974년 설립허가된 재단법인 눈비산마을에서 출발했다. 눈비산마을은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흙살림의 사명과 마찬가지로 자연생태계에 어울리는 농업을 실천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적 나눔으로 살기좋은 농촌만들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또한 농어촌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통해 농어업을 육성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농어민의 인간적인 삶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민간 연구소이다.

■11월 흙살림 주요 일정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7일	서울	행사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20주년 기념식
13일	진안	워크숍	100	현장실습교육 워크숍
17일	괴산	행사	15	김장 담그기
19일	괴산	교육	20	충남농업기술원 친환경학과
21일	청주	교육	95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1차 교육
21일	괴산	교육	17	옥천군농업기술센터
25일	괴산	교육	30	두레생활협동조합
27일	괴산	교육	26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27일	서울	토론회	–	대안농정대토론회

■알림

흙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밀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우리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문의 : (사)흙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처 : 농협 323-01-059315.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 11월 회원 가입자 명단

김준배(청주), 김봉기(청주), 정규태(청주)

■ 흙살림 후원회원 명단

강명임,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영삼, 김경인, 김계향, 김광부, 김난영, 김남운, 김동숙, 김동연, 김동진, 김명실, 김병수, 김봉균, 김생수, 김신유, 김연철, 김영권, 김영철, 김원섭, 김이진, 김인호, 김정곤, 김정순, 김창호, 김창환, 김홍희, 김행숙, 김현주, 나기창, 남기운, 도명수, 도봉숲속마을, 라병현, 라양채, 류훈희, 문상기, 민병용, 민성기, 민인기,박규견, 박기선, 박기활, 박동윤, 박래훈, 박미경, 박미숙, 박미영, 박병혁, 박상일(서울), 박상일(해남), 박성남, 박승희, 박안필, 박영숙, 박영범, 박의준, 박익순, 박정국, 박종삼, 박종수, 박종화, 박준순, 박재동, 박재환, 박효은, 반명수, 방미진, 배은아, 백미숙, 백운남, 백은숙, 서성내, 서순악, 서현주, 석종욱, 선호균, 성경숙, 성기남, 송기봉, 송동흠, 송종호, 송재종, 송지은, 신동규, 신문수, 신언관, 신치영, 신홍기, 심민보, 안정택, 양병근, 엄창근, 오과칠, 오두연, 오지은, 유승찬, 유우현, 육종식, 윤국현, 윤미경, 윤성희, 이강욱, 이계수, 이기종, 이도훈, 이명환, 이미선, 이민채, 이병두, 이샛별, 이석천, 이성원, 이승훈, 이완호, 이유정, 이은미, 이일웅, 이재숙, 이재웅, 이재형, 이재희, 이정필, 이정효, 이종국, 이준규, 이진태, 이태근, 이필규, 이항순, 임승익, 임원택, 장동철, 장명숙, 장명순, 장정수, 전광석, 전희수, 정광영, 정구홍, 정규원, 정기인, 정기환, 정명순, 정민수, 정석조, 정은, 정인숙, 정창환, 정청천, 조광윤, 조기진, 조복남, 조정신, 조중기, 조희주, 주영직, 주윤식, 천호균, 최경주, 최관호, 최광욱, 최금열, 최도경, 최서연, 최연숙, 최유라, 최인철, 최춘식, 편용길, 하재우, 한인성, 함선녀, 함종식, 허병문, 허상오, 허현옥, 홍승면, 홍정옥, 홍종윤, 황정연, 황정희.

흙살림 신문이 광고를 받습니다

흙살림 신문이 광고를 받습니다.
유기농자재는 물론 농산품, 농업관련정책 등등 농업과 관련된 소중한 정보를 흙살림 신문을 통해 전달하세요. 흙살림 신문은 흙살림 회원과 생산농가, 농업관련단체 , 꾸러미 회원들은 물론 도시농부와 소비자들이 모두 읽는 소식지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대상에게 정확히 전달해 줌으로써 목적하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유기농업의 '믿음 가는 동반자' 흙살림과 함께 하세요.
흙살림 신문 광고 문의 : (사)흙살림 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균배양체 특등급으로 승격!
흙살림 균배양체 그린
20kg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흙나라
유박 골드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흙살림 골드
농협계통 유기농업용 발효퇴비
흙살림 균배양체 그린
풍부한 발효미생물과 천연양분을
함유하고, 염류집적없이 비효가
빠릅니다. 흙을 살리는
친환경 종합토양관리제.
-
특등급 부숙퇴비(20kg)
+유기물 40% 이상
2015년 농협계통 유기질비료
흙나라 유박골드
양분파괴가 적은 저온 성형.
냄새가 다릅니다.
토양살포 후, 발효가 빠르고
분해가 잘됩니다.
-
친환경 혼합유박 - 펠렛(20kg)
4.3-1.7-1
+유기물 70% 이상
발효부숙촉진용 미생물자재
흙살림 골드
발효 및 길항미생물이 다량 함유된
부숙 촉진제. 퇴비발효를 촉진하고,
유용미생물을 공급합니다.
-
퇴비발효시 퇴비 2톤당 1포
밑거름시 150평당 1포 살포 후 로터리
2015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장소 | 읍, 면, 동사무소, 이장, 농협 등
공급시기 | 2014년 12월부터 공급
제출서류 | 읍, 면, 동 사무소에 비치
지원품목
①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흙나라 유박골드) - '(주)흙살림'으로 신청
② 부산물비료 | 특등급 퇴비(흙살림 균배양체그린) - '(주)흙살림'으로 신청
꼭 '특등급'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 또는
흙살림 농자재팀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80-333-8179 / 043-216-8179
구입 및 문의사항 043-216-8179 | 흙살림쇼핑몰 http://shop.heuksalim.com | 입금처 농협 323-01-063992 (주)흙살림